

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2023한국국제축산박람회

9월 6~8일 대구 엑스코,
코로나 이후 축산업 재도약 계기

2023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9월 6~8일(3일간)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된다. 본회가 1991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한국양계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20번(양계박람회 4회, 축산박람회 16회)의 박람회가 열리

는 동안 본회가 7번 대회를 주관한 바 있다. 이번이 8번째 주관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박람회 초창기는 외국 수입 업체들이 박람회에 대거 참여하여 국내 시장 진출의 장이 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그동안 국내 축산기자재 수준이 선진국 못지 않게 높아졌고 해외수출 시장을 공략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동물약품업계는 해외 박람회에 대거 참여하여 동남아, 유럽 등의 시장 공략에 나서 상당수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동안 5~6년간 코로나-19,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인해 전시회들이 취소, 연기되면서 그렇다 할 박람회가 개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박람회는 축산업 발전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고 축산업의 재도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7월부터 전체 190업체(외국 24개업체 포함)에서 650부스가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아직도 참가 상담을 하는 업체와 기관들이 있어 8월에 최종 부스가 마무리되면서 성공적인 박람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축산의 모든 분야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게 된다. 양계분야는 계란콘테스트 등 다양한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본회는 버스 지원 등을 통해 관람객도 역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계인들의 방문을 돕기위해 본회 각 지역 도지회, 지부를 통해 버스지원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계인들은 가까운 지역에 연락, 함께 참여하여 농장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계란자조금 7월부터 도계장에서 거출 산란성계 가격과 농가들의 참여가 성공 좌우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수납기관을 농가단위로 직접 거출하던 것을 노계도계장으로 변경, 거출을 시작하였다.

자조금 수납기관 논란은 2009년 처음 자조금을 거출할 때부터 잡음이 있었다. 자조금 도입 이전 사료에서의 거출, 병아리를 통해 부화장에서 거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타 축종과의 형평성 논란, 거출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산란성계(노계)에서 거출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당시 산란성계 100원, 산란종계 300원, 중추 10원으로 정하고 거출을 시작했으나 초창기 참여율이 낮고 무임승차 논란이 일자 2011년에는 가격을 산란성계 50원으로 낮추어 거출하였다. 이후 자조금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2015년에는 다시 산란성계 80원으로 조정하여 연간 30억 정도의 자조금을 운용할 정도로 기반을 잡아가는 듯 했다. 하지만 2017년 살충제검출 파동으로 산란계 업계가 초토화되었고 수출 뿐만 아니라 소시지·햄 원료로 사용되던 산란성계육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으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런 와중에 2018년 거출율이 20%수준에 그치면서 도계장들의 협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거출율제고 및 원활한 자조금 사업 운용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도계장 거출에서 수납기관 없이 농장에서 직접 거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에서 직접 거출은 한계를 보여줬고 거출율은 점점 떨어져 자조금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도계장으로 수납기관을 변경한 것은 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차선책이라 볼 수 있다.

과거 도계장으로부터의 거출이 실패했던 것은 계란살충제 파동이라는 사건과 산란성계육 가격하락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대규모 사육 농장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는데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계란 자조금은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거출하는 것이 자조금의 취지에 맞다. 하지만 지역적인 대형유통센터나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전체 계란을 완벽하게 소화해주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가 갖추어질 경우 계란자조금 거출은 계란유통센터를 통해 거출이 수월해질 수 있다.

기반이 다져지기 전까지는 도계장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대규모 사육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자조금 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조금 사무소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는데 소모전을 펴지 말고 자조금 거출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양계**